

광주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민원 200여건 ‘홀쩍’

대다수 “배차 지연” 토로
대체 인력 파로 누적 따른
운행 차질 우려도 현실화
노조 “내일 대규모 집회”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는 동안 운행률은 80%대를 유지했으나, 첫날에만 2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1천41대 중 882대다.

전체 102개 노선 중 7개는 미운행 중이며, 49개는 운행 횟수가 줄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업 전과 동일하게 정상 운행 중이라 운행률은 전날과 비슷한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극심한 교통 대란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다.

실제 ‘무기한 파업’ 돌입 첫날인 전날 광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불편 민원은 200여건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원 내용의 대다수는 ‘배차 지연’에 대한 문의와 불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접수된 민원의 경우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면서도 “전날에



광주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전남대병원·남광주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길어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이어 불편 사항이 이어지고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지난 5일 11년 만의 파업 돌입 때부터 예상된 대체 인력의 파로도 누적에 따른 문제도 현실화됐다.

상당수 노조원이 파업 중인 A 운수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 중 일부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예정된 배차 계획대로 운행되지 않았다. 이는 대체 인력의 파로 누적 예방을 위해 A 운수회

사 측이 운행 횟수를 줄인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운행이 중단된 시간에 해당 노선의 탑승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파업이 길어질 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자명하나,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과 사측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제시안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측은 타 지역의 임금 인상률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11일까지 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무기한 파업 방침도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

광주 북구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추진

3단계 계획…오는 2031년 목표

‘담양하천습지 지방정원’ 지정도

14일 평두메습지 1주년 기념행사

광주 북구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지정 1년여를 맞아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과 담양하천습지의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한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람사르습지 도시는 국제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를 거쳐 지정된다. 인증이 이뤄지면 세계적 생태 도시로 공인받게 되고 국내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선 최초로 기록된다. 이를 위해 북구는 총 3단계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음 해까지 추진되는 1단계에선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조례 제정과 습지보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제도 기반과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2단계 (2027~2028년)에선 생태교육센터 설립 검토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실행 기반을 다진다.

마지막 3단계 (2029~2031년)는 환경부를 통해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공식 신청하고,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게 목표다.

북구는 담양하천습지·월산보 구간의 지방정원 지정 절차도 밟고 있는데, 이를 통해 람사르습지 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대나무·버드나무 군락지가 분포된 담양하천습지는 지난 2004년 7월 국내 최초로 ‘습지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

영산강 상류 철새의 집단 서식지인 북구 용강동과 담양 수북면에 걸친 이 습지는 조류 등 다양한 생물체의 서식처이자 휴식처로 알려져 있다.

문인 북구청장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청장은 “람사르습지 도시는 단순한 생태 도시 인증이 아니라 지역의 국제적 위상, 생태관광, 환경교육, 도시 브랜드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북구가 국내 생태행정의 선도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13일 광주 1호, 전국 26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평두메습지는 북구 화암동 530번지 일원의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묵논습지이자 해발고도 240m에 위치한 산지형 내륙습지다.

2만2천600㎡ 규모의 습지에는 낙지다리·개대항 등 희귀 식물과 솔부엉이·소쩍새·원앙 등 천연기념물, 수달·샼·담비 등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총 786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14일 흥민사와 평두메습지 일원에서 람사르습지 등록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도전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전남경찰 ‘또’ 음주운전 적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1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구례경찰서 A 경감은 지난 7일 오후 영광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A 경감의 직위를 해제하고 구례경찰서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올해 들어 벌써 3번째다. 앞서 전남청 소속 B 순경은 지난 4월 이른 오전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3월에는 신안경찰서 소속 C 경감이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직위해제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은 직위해제 조치되며 엄격하게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개인 일탈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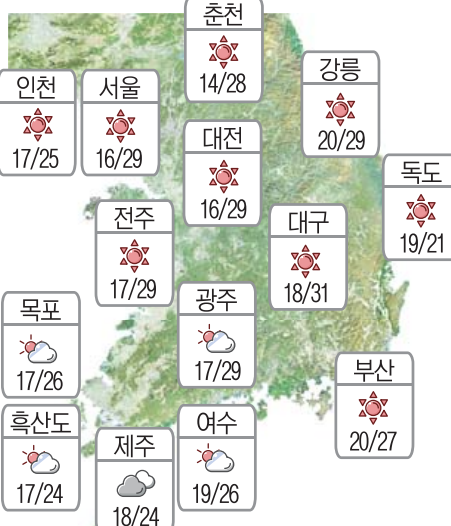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7 🌧달돋이 20:07 달질 04:39

●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17/29	장성	맑음	14/29
목포	구름조금	17/26	보성	구름조금	16/27
여수	구름조금	19/26	함평	구름조금	15/28
나주	구름조금	15/29	순천	구름조금	18/28
완도	구름조금	18/28	영광	구름조금	15/27
구례	맑음	17/29	진도	구름조금	16/25
강진	구름조금	17/29	흑산도	구름조금	17/24
해남	구름조금	16/28	고흥	구름조금	17/28
광양	구름조금	19/28	담양	맑음	16/30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면바다(북)	0.5-1.0	0.5-1.0
남부	면바다(남)	0.5-1.0	0.5-1.0
	앞바다	0.5-0.5	0.5-0.5
남해	면바다(동)	0.5-1.0	0.5-1.0
	면바다(서)	0.5-1.0	0.5-1.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2:17	07:38	여수	08:48	03:06	09:26
	13:59	19:21		21:34	14:44	22:18

●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 차 8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 래 70

운동 6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 주간 날씨

12일(목)	13일(금)	14일(토)
☁(18/28) 구름맑음	🌧(20/27) 구름비	🌧(22/27) 구름비
15일(일)	16일(월)	17일(화)
☁(22/27) 구름맑음	☁(20/29) 구름맑음	☀(20/30)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조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동행

과거를 아픔을 그리고 미래를
함께 나누며 나아갈 것

[의료광고심의필 제201022-종-113068호]

고객센터 1811-7474

-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공단검진 062-220-3615
- 종합건강증진센터 062-220-3030
-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세계최고 기독교 선교병원
광주기독교병원
Kwangju Christian Hospital

재단이사장
주 계 옥

병원장
이 승 욱